

부다피아 사이트연락



로터스 불교예술화랑

불교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사이버 화랑이 인터넷 상에서 불교예술에 관심을 갖는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로터스불교예술화랑'은 △불화 △불상 △조각 등의 메뉴를 마련해 각각 8~10개에 이르는 그래픽을 제공해 주는 한편 각 방문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을 전시할 의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자기 가능해 불교예술의 자유로운 교류 또한 유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 중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3차원 입체영상, 3차원

그래픽으로 보는 고대 불교예술 진수

예술품의 연대까지도 세밀히 기재해 주고 있어 불교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여준다. 이 중에서 실크로에서 발견된 '부처님 입상(AC 630년)'과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부처님 불화(AC 690년)' 등이 고대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불거리. 이외에도 △불교예술 관련 논문 △예술품 등록 메뉴를 통해

방문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을 전시할 의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자기 가능해 불교예술의 자유로운 교류 또한 유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 중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3차원 입체영상, 3차원 그래픽 서비스는 불교관련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로 방문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로터스불교예술화랑'이 제공하는 모든 그래픽을 입체적인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픽은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이 가능하다. 사이트 주소: http://www.lotus-studio.com/dama-art.htm

불교무형유산 문화재지정 폭 넓혀야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까지 잡음이 이는 등 문화재지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불교계는 이번 기회에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불교문화 가운데 맥이 끊길 우려가 있는 종목들을 새로 지정,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관리돼야 하는 무형의 유산들이 불교라는 종교색 때문에 지정돼 있지 못하거나 세부적으로 분류돼야 할 것도 큰 덩어리로 묶여 체계적인 전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불교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진은 불상 복장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98종으로 1백74명의 기능보유자와 51개의 기능보유단체가 보존·전승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중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로는 승무(27호)와 영산재(50호), 단청장(48호) 3종목, 승무는 이매방씨가, 영산재는 송암·벽음·일음·지광스님(이상 태고종)이, 단청장에는 만봉·해각·석정스님 등 모두 8명이에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으며, 영산재의 경우 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가 기능보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영산재의 경우 법과와 법부, 장엄 등 세분화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놓고 있어 제대로 된 기능 전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단청장 또한 불화와 조각, 단청 등 최소한 세분야만으로도 분류해야 한다는

그러나 기능보유자와 불교계 문화재전문가들은 불교관련 종목을 세분화해 올바른 전승을 위한 제도

특히 가곡, 관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의 하나인 범패의 경우 영산재를 비롯해 상주권공

승무·영산재·단청장 3종목만 제도적 보존 사찰음식·탑돌이·복장의식등 맥 끊길 위기

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세부적 지정 외에 다양한 종류의 불교전통문화를 관리·전승하기 위

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다. 불상복장의식의 경우 수진스님(담양 용화사)에 의해 유일하게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전수자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찰음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하나의 장르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며, 사찰음식과 궁중음식이 서로 융합해 발전해 왔음에도 궁중음식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불교의사이면서도 민속놀이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돼 있는 탑돌이의 경우는 본래의 의식이 변형되면서 지금은 제대로 된 의식장면을 보기 힘든 상태다. 오래전부터 탑돌이의식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로 보존을 추진해 온 흥원사(충주대 박물관장)는 "탑을 돌려 탑돌이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에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며 이어질때 살아움직이는 불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위원회 법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은 "승복, 지화(紙花) 등 불교 전통문화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물론 기능보유자를 찾아 체계적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美 스포츠계 '명상' 바람

禪 프로그램 활용 잠재력 개발·정신집중 훈련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애플리케이션의 열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스포츠계에 선(禪)을 이용한 명상훈련법이 선수들의 정신적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NBA 왕좌에 등극한 시카고 불스팀의 감독 필 잭슨은 선수들을 지도할 때 불교의 선(禪)에 기초해 선수들을 훈련시킨다. 그는 작년 12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내부를 눈을 뜨는 선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은 화를 잡지라도 놓지 않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사건 일상이서건 경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집중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 체력, 기술·경기 규칙 등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스포츠 심리학자의 조사 결과 '잠재력' 또한 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 마이클 노박씨가 미국 선수들에게 경기에 몰입한 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들

원효 '번뇌이론' 과 정신의학 상통

이죽내 박사 二障義 분석심리학적 조명

현직 의사가 원효스님의 번뇌이론(煩惱理論)을 인간심성에 기초하고 있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조명해 관심을 끈다. 이죽내 박사(경북대 의과대 교수)는 가산학보 5집에 게재한 논문 '원효의 번뇌이론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에서 원효스님의 번뇌이론이라 할 만한 이장의(二障義)를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원효스님의 번뇌이론과 분석심리학의 정신심리론은 의미상의 근본적 차이가 없으며 이론 상호간의 의미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박사가 정의한 원효의 번뇌이론은 근본무명(根本無明)·모든 번뇌의 근본인 깨달지 못한 마음(無明)·원심(染心)·깨달지 못해 그 본성이 가리워진 마음(無明)이 생겨나고 그 염심에 의해 다시 집착심이 일어나며 그 집착심에 의해 번뇌, 즉 장애(障礙)가 발생한다는 것. 이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박사는 장애(障礙)를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가리'를 덮어 가려서 자기실현을 가로막고, 따라서 착각적 현실을 드러내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보았다. 집(執)은 아집과 법집(法執)이 있는데 이들은 실상(眞相)의 무지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백양사 명부전

地藏大聖誓願力 (지장대성서원력) 恒沙衆生出苦海 (항사중생출고해) 教化厭苦思安樂 (교화厭苦思安樂) 故現問羅天子形 (고현문라천자형) 悲增普化示威靈 (비증보화시위령) (비증보화시위령) 六道輪迴不暫停 (육도輪迴不暫停) (육도輪迴불잠정)

지장보살의 크신 원력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 벗겨 줄이며 세간고통 뛰어넘어 편안하게 하시려고 어느 때든 열라모습 어느 곳엔 자비보살 크나큰 염력으로 가지가지

로 몸 나뉘 육도 중생 교화함을 잠시라도 쉬지 않게 해설 백양사 명부전의 주련은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지옥중생을 제도하는 대보살인 보살인 지장보살의 대원력은 중생들의 원회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윤회는 고통이다. 우리는 갖가지 업연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굴레를 벗기위해 불보살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대도에 이르기 어렵다. 그것이 쉽지 않은데서 지장보살의 원력이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련의 내용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계의 중생과 현생의 중생 모두를 위하여 원회를 교화함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라의 모습과 자비보살의 모습을 함께 갖추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나타나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도의 중생은 언제나 지장보살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을 마지막 행에서 일러주고 있다. 육도란 중생이 윤회하는 과정에 갈 수 있는 여섯가지의 길을 말한다. 그것은 지옥도 아귀도 축승도 수라도 인간도 천도등이다. 육도윤회란 말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무형문화재보존 국제회의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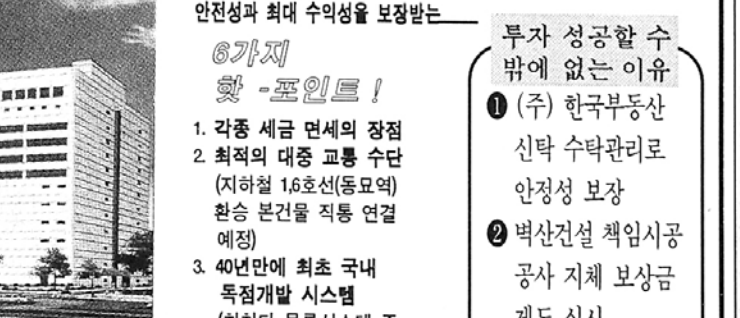
10월22일~25일 서울서 15개국 전문가 의견교환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태워호텔에서 15개국 2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국제보급을 위한 국제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유럽·아프리카 4개국과 아·태 지역 10여개국 등이 참석하게 될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인간문화재사업에 유네스코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각 국가의 고위급 문화정책담당자들과 유네스코 본부측의 문화담당국장이 직접 참여해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루마니아 필

확실한 부동산 최고의 투자대상!

"동대문 시장 內 전문도매상가"

삼우텍스프라자 "실투자액 4000만원선 (무담보 융자 3000만) → 투자 1년 후 2.3억 이상 형성 보 1억여원 월 250-350만"



- 6가지 핫-포인트! 1. 각종 세금 면세의 장점 2. 최적의 대중 교통 수단 (지하철 1.6호선(동묘역) 환승 본건을 직통 연결 예정) 3. 40년만에 최초 국내 독점개발 시스템 (최첨단 물류시스템 즉 원가 경기절감의 극대 효과) 4. 어떤 부동산보다 단기의 최고 수익률 (투자액의 20배 수익 3-5년 기점 형성 예상) 5. 분양가 상당 저렴 (주변 상가의 50%의 이하) 6. 완벽한 주차장 구비 (1,500대 동시주차)

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 상가인 아트프라자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원단, 부자재 상가중 초일류 1등으로 삼우텍스를 개발합니다. ★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 노후대책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상담역= ☎ (02-264-3383) 개발사업부 부장 김남일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노령에 의한 관절염,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체중이 무거워져 발생하는 관절염,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퇴행성 골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약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김진길(56세) 세계참파은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파은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파은 박종팔의 스승) 씨 등 많은 권위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서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일양행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주)한국복지공사 농협: 094-01-146584 우체국: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서울: (대)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